

## “광주시청사 ‘시민 열린광장’으로 탈바꿈한다”

### 4월 정례대회 열어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 공개 담장 허물고 청사내 1층 장애물 제거해 ‘비움과 개방’ 실현 강기정 시장 “행정·문화·정치 담론의 장으로 시민행복공간”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례대회를 열어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정례대회에서 김광태 주무관(회계과)은 치평동 청사 개청 20주년을 맞아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광태 주무관은 “파리에 있는 튀일리 공원은 모두의 것이지만, 연못가에 놓인 의자 하나로 ‘나만의 장소’로 만든다”며 “이처럼 최소한의 개입으로 변화를 주는 ‘도시침술’ 방법을 시청사에 적용해, 비움과 개방을 통한 열린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열린청사 조성을 위해 현안토론, 전문

가 자문회의, 선진지 견학,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전담팀(TF)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방재정의 숲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더해 지난 2022~2023년 열린청사 조성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먼저 청사 외부는 시민 편의를 위해 ‘광장’ 기능을 살리기로 했다. 출입제한, 폐쇄적인 느낌의 시청사에서 시민들이 청사의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전면 개방감을 확대한다. 또 보행 동선을 가로막는 표지석, 격자형 보도,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대신 쉼터 등을 마련해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청사 내부는 1층에 홍보관, 전시관, 카페 등이 흩어져 있어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다 시민 이용도가 낮은 점,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쉴 공간이 없는 점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광주시와 전담팀은 지난 2년 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대안을 마련,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사 내부 1층은 시민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비웠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 카페를 새로 열고, 캐스퍼 홍보관은 눈에 띄는 위치로 이전하며, 시민과 객맞이방은 독립공간으로 꾸미고,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회의실 등과 함께 일원화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청사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광주시 치평동 청사는 지난 2004년 3월30일 현재 위치로 이전해 개



강기정 광주시장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중 정례대회에 참석해 시청사 개청 2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청사’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청 20주년을 맞았다. 광주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원들이 청사 건립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은 영상을 자체 제작·공개해 호응을 얻었다. 강기정 시장은 “시청사는 시민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당

연하다. 나아가 역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담론 생산지이자, 공공이 가진 예술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유체가 돼야 한다”며 “열린청사의 시작은 우리의 발길, 눈길, 바람길

등을 가로막는 지장물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행정적, 정치적, 문화적 서비스를 신속히 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고 친절히 맞이하는 배려까지 갖춰지면 열린청사는 완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 기아, 한층 높아진 플래그십 세단의 품격 ‘The 2024 K9’ 출시



기아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4 K9’을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아 제공

기아가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4 K9’을 2일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한다. The 2024 K9은 내·외장 디자인을 한층 고급화하고 신규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이번 K9의 외장에 수평형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을 새롭게 적용하고 신규 내·외장 색상을 도입해 플래그십 이미지를 더욱 높였다. 특히 수평형 패턴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테두리의 얇아진 크롬 베젤과 어우러져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해 K9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형성한다. The 2024 K9의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 ‘페블 그레이’를 포함해 총 5종으로 운영되며, 내장 색상은 ‘마션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 색상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으로 운영된다. (※ 미스티 그레이는 프리미엄 팩 옵션 또는 베스트 셀렉션 II 트림 선택 시 적용 가능) 아울러 기아는 The 2024 K9의 기본 트림부터 ▲애프터 블로우 ▲C타입 USB 단자(전/후석 콘솔 내부) ▲차량용 소화기 등 고객 선호 사양 및 안전 사양을 신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아 차종 최초로 운영하고, 동승석 메모리 시트를 마스터즈 트림부터 기본화하는 등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은 동승자 편의성을 확보했다. (※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는 VIP 컬렉션 옵션 또는 베스트 셀렉션 II 트림 기본 적용) The 2024 K9의 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플래티넘 5천933만 원 ▲베스트 셀렉션 I 6천665만 원 ▲마스터즈 7천395만 원 ▲베스트 셀렉션 II 8천210만 원이며, 3.3 가솔린 터보 모델 ▲플래티넘 6천588만 원 ▲베스트 셀렉션 I 7,241만 원 ▲마스터즈 7천870만 원 ▲베스트 셀렉션 II 8천85만 원이다. (※

개별소비세 5% 기준, 플래티넘은 후륜 구동, 이외 트림은 사륜 구동) 기아 관계자는 “The 2024 K9은 동급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사양 신규 적용과 내·외장 색상 추가로 더욱 향상된 상품성을 갖추게 됐다”라며 “한층 고급스러워진 상품성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만족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9은 기아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객의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차량이다”라며 “진취적이고 품격을 갖춘 성공한 리더들에게 최상의 감성적 경험을 선사하고, 함께하는 여정을 더욱 빛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빈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